

# 양자대결 원칙...전략공천 1곳·단수공천 2~3곳 전망

〈순천 분구시〉

민주 오늘부터 3일간 광주·전남 면접심사...공천심사 마무리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9일부터 4·15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도 10일부터 본격화된다.

관련 포인트는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컷오프 이후 치러질 민주당 경선이 양자대결 구도나, 다자대결 구도냐의 여부다. 또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전략공천 및 단수공천 지역구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4일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5 총선 후보 신청자 47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첫날인 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지역 79명의 신청자가 시험대에 오른다. 광주·전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은 10일 대부분 실시된다. 권리당원 불법 조희 논란이 불거진 광주 광산구는 11일, 단수 후보 신청 지역인 광주 서구갑은 13일 각각 면접이 실시된다.

공천위원회는 지역구별로 2~4명씩 한 조로 구성된 신청자들과 10분 안팎 마주 앉아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한다.

민주당 공천 심사에는 정량평가인 후보 적합도 조사 40%, 정성평가 60%가 각각 적용된다. 정성평가는 면접 10%, 정례화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로 구성된다. 면접 결과는 정성평가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때, 정량평가인 후보 적합도 조사가 지난 주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면접이 완료되면 경선 구도는 물론 전략공천 및 단수 후보 지역구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면접 심사 등을 통한 경선 구도를 주목하고 있다. 지역위원장 출신 예비 후보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대결 구도나 다자대결 구도나에 따라 경선 판세가 요동칠

정량평가 적합도조사 완료

대결 구도따라 경선판 요동

단수·전략공천 최소화 할 듯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자대결 구도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인지도나 권리당원 등에서 기득권이 있는 기존 지역위원장 출신 예비 후보들이 유리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지역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자대결 구도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중앙당에서는 정량 및 정성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양자대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지만 2, 3위 예비 후보들이 접점을 펼칠 경우 다자대결도 일부 지역구에 한해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예비 후보들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장 면접 심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예행 연습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공천 여부도 관심사다. 공천 심사에서 해당 지역구내 1, 2위 후보 간에 총점에서 30점 이상 또는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지난 주 실시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이름 사용을 사실상 불허했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구의 경우, 단수 공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앙당에서는 단수 공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단수 공천은 많아야 2~3개 지역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공천 지역구도 이번 면접 심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당초 최소 2~3곳에서 전략공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천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근에서는 이해한 대표가 내세웠던 '경선 원칙'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의 선거구 확정에 따라 순천시가 2개의 지역구로 분구될 경우, 한 곳에 대해 전략공천이 이뤄지는 선에서 최소화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전략공천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논란이 있는 지역구의 경우, 중앙당이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 영인 인사를 투입하는 전략공천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무리한 전략공천은 오히려 후폭풍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앙당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기호 3번' 호남신당 이번주 출범 목표... '3당 통합' 쟁점

바른미래·대안신당·평화 오늘 통합추진기구 출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정당은 이른바 이번 주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원내 3당'으로서 존재감을 키워 총선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정당은 10일 각 당 협상 대표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동을 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열 통합추진위원장과 함께 평화당에서는 그간 협상 창구로 활동해온 조배숙 원내대표가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 회동에서는 통합의 방식과 지도부 구성, 정당·정책, 당직자 배치 등이 한꺼번

에 테이블 위에 오를 방침이다. 당명의 경우 외부 공모를 통해 통합당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당 합당이 마무리되면 청년, 소상공인 등 외부 세력과의 '2차 통합'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복안도 있다.

통합추진기구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마지막 비유면 10일 하루만 만나도 통합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것이 돌출할 지점도 지도부 구성 외에는 없는데, 과도기적인 지도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까지 불과 64일 남짓 남은 만큼 서둘러 통합을 마무리해 후보 공천 등을 본격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정당이 한데 뭉치면 28석(바른미래당 17석, 대안신당 7석, 평화당 4석)의 통합 정당이 탄생한다. 안철수계 의원 7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더라도 21석을 확보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으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선거구 확정 등이 결정될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오는 15일인 점도 통합을 재촉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통합을 서둘러 더 받게 되는 보조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통합 방식과 지도부체제를 놓고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빠른 통합이 가능하도록 바른미래당에 다른 정당들이 모이는 '흡수 통합' 방식을 제안했지만, 대안신당과 평화당은 '새 집'을 짓는 '신설 합당' 방식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정당의 대표를 놓고도 3당에서 공동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안,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진천·아산 방문 "우한 교민 보듬어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을 잇달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진행 예정인 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교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교민들의 소소한 불편을 다 해소해드린다 해도 2주간 격리생활이 불편하지 않겠다"라며 "입맛이 심한 입산부도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안전히

지낼 수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민들에게 손을 한 번 흔들어달라는 이시종 충북 지사의 요청에 따른 지역의 숙소를 바라보고 잠시 손을 흔들어주고 현장을 떠나기 전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허리를 숙여 각별히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맹동혁신도시출장소로 이동해 진천·음성 주민 20여 명과 간담회도 갖고 "우한 교민들이 이 지역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던 것은 당연한 일"이

라며 "그런데도 교민들을 가족·형제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들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외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안철수 '국민당' 창당 발기인대회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이 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발기인대회에는 안 전 의원과 권은희·김수민·권은희·이태규·신용현·김중호·김삼화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과 발기인 300여명이 참

석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안 전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창준위위원장 인사말에서 "국민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진영 정치를 무찌르고 제대로 된 도우미 정치를 하기 위해 뿌리깊은 권위주의와 온몸으로 부딪하겠다"며 "투쟁하는 실용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그는 "우리의 여정이 험난할 것임을 알고 있지

만, 이 담대한 도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험하고 거칠더라도 이 길이 옳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당 창당에 참여하는 안철수계 의원들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제외하고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당적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당은 창준위 체제 전환을 계기로 7개 시도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한다. 중앙당 창당은 3월 1일로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